교회의 거룩과 삶의 예배:
레위기 16:7-22의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Holiness of the Church and Worship Life: A Christotelic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6:7-22

송 영 목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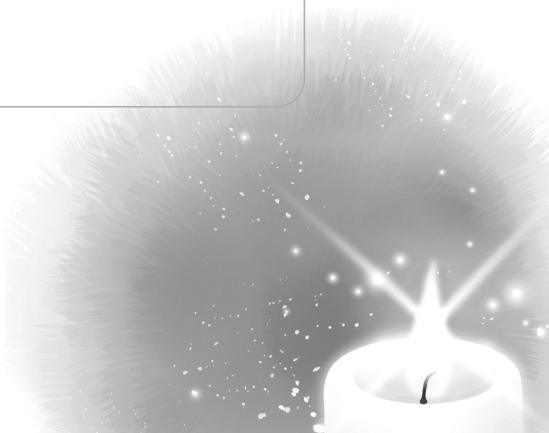
들어가면서 | 459

1. 레위기 16장의 아사셀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 459

2. 아사셀에게 보내어진 염소의 실체이신 대제사장 예수님 | 465

3. 교회의 거룩과 삶으로서의 예배 | 468

나오면서 | 476



요약

교회의 거룩과 삶의 예배: 레위기 16:7-22의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한국 교회의 거룩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거룩과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대신에 즐거움과 재미를 쫓다가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그리고 성도의 삶이 교회당 안과 밖, 그리고 주일과 주중에 이원화되었다는 지적은 오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거룩을 강화하고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사건의 빛 아래서 (Christotelically) 레위기 16장의 대 속죄일의 규례 중 아사셀에 관한 본문을 주석함으로써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Holiness of the Church and Worship Life: A Christotelic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6:7-22

주요어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 레위기 16, 아사셀, 교회의 거룩

Abstract

Holiness of the Church and Worship Life: A Christotelic Interpretation of Leviticus 16:7-22

Prof. Dr. Young-Mog Song

In a recent time, the holiness in Korean Church is weakening. Instead pursuing the holiness and essential mission of the Church, she is criticized owing to enjoy happiness and fun thus falling into the entertainment. The life of the Christians is also under criticism, due to their dualism, that is the dichtomy between in-out the Church as well as the weekday and the Lord's day. However, this phenomenon neither improved nor solved. How can we enforce the holiness of the Church and to make the Christian life worship life? Let us find the answer by investigating Leviticus 16 which deals with the Great Atonement day in connection with Azazel in the light of the Christotelic interpretation.

Keywords | Christotelic interpretation, Leviticus 16, Azazel, Holiness of the Church

들어가면서

한국 교회의 거룩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거룩과 본질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대신에 즐거움과 재미를 쫓다가 엔터테인먼트에 물들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1] 그리고 성도의 삶이 교회당 안과 밖, 그리고 주일과 주중에 이원화되었다는 지적은 오래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거룩을 강화하고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사건의 빛 아래서(Christotelically) 레위기 16장의 대 속죄일의 규례 중 아사셀에 관한 본문을 주석함으로써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레위기 16장의 아사셀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후(레 10),[2] 하나님은 대제사장 아론이 특별한 세마포 옷을 입고 속죄일에 어떻게 정결의식을 치러야 하는지 지침을 레위기 16장에서 주신다.[3] 티쉬리월 7월 10일에

1) 옥성호,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17.
2)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했고(레 10:1), 아마 그들은 술을 마셨고(레 10:9), 함부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다(레 16:2).
3)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두 번째로 십계명 돌 판을 받아 시내 산을 내려온 날이 대속죄일이었다(출 34:29-32).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 날에 하나님은 이전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을 용서하셨다고 보았다. 참고. A. Noordtzij, *Leviticus* (Bible Student's

거행하는 대 속죄일(혹은 대화해의 날)에는 지성소 안과 밖에서 정결 의식이 진행되었다(참고. 레 16:29; 23:27-28).[4] 대 속죄일(יוֹם הַכִּפֻּרִים, the day of atonement; 참고. 속죄는 히브리어로 *kipper*)에 제비를 뽑아 숫염소 한 마리는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리고,[5] 제비 뽑힌 다른 숫염소는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לַעֲזָאזֵל, LXX: τῷ ἀποπομπαίῳ, to the one carrying away[evil], 혹은 '아사셀에게') 광야로 보내야 했다(레 16:8, 10). 숫염소를 '아사셀에게'(לַעֲזָאזֵל) 보낸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야 한다(레 16:26).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행하는 속죄 사역을 백성이 볼 수 없었으므로(레 16:3, 12-15), 아사셀에게 염소를 보내는 것은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의 차원이 있다.[6]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2), 173.

4) 대 속죄일을 유대인들은 '그 날'(*Yoma*)로, 요세푸스(유대고대사 XIV 4, 3)는 '금식일'로, 필로는 '금식의 잔치'로, 그리고 랍비들은 '큰 금식'(the great fast)으로 불렀다. 대 속죄일이 구약의 3대 절기만큼 유명하지 않은 것은 그것의 제의적이며 의식적인 성격 때문으로 보인다. 참고. Noordtzij, 1982:159. 레 16장의 대 속죄일의 제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제사장이 목욕하고 세마포 옷을 입음(4절), (2)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바침(6절), (3) 대제사장은 향을 피우고 지성소로 들어가 법궤 위에 수송아지 피를 뿌림(12-14절), (4) 대제사장이 염소 두 마리를 제비 뽑아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 준비함(7-8절), (5)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죽임(9, 15절), (6)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두 번째 들어가서 숫염소의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림(15절), (7)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회막을 위해서 피를 뿌림(16절), (8) 회막의 뜰로 나와서 번제 단에 피를 뿌림(18-19절), (9) 대제사장이 속죄 염소의 머리에 안수할 때 백성의 죄를 고백함(21절), (10) 광야로 숫염소를 보냄(21-22절), (11) 대제사장이 몸을 씻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음(23-24절), (12) 대제사장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번제를 드림(24-25절). 따라서 대제사장이 1년에 1회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대 속죄일의 의식 중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는 것과 속죄양을 아사셀을 위해 광야로 보내는 것이 특징이다. 참고. L.T. Dennis (ed.), *ESV Study Bible* (Wheaton: Crossway Bibles, 2008), 183.

5) 아마 야웨나 아사셀을 위한 이름이나 기호를 표시한 두 개의 돌로 된 제비나 그와 비슷한 것을 그릇 속에 넣고 흔들어서 우선 하나 씩를 뽑아내는 방식이었을 것이다(참고. 수 18:11). 참고. M. Noth, 『레위기』 (*Leviticus*,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1978]), 147.

'아사셀'(עֲזָאזֵל, *ʿăzāʾzēl*, Azazel)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이 단어는 구약에서 레위기 16:8, 10 (2회), 26절에만 4회 등장한다.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아사셀의 의미에 대한 4가지 주장을 간단히 비평하면 다음과 같다:

(1) 주로 랍비들이 주장하듯이 숫염소를 떠나보내는 광야의 장소인가?[7] 아사셀이 '거친 장소'(rough place)라는 견해는 미드라쉬 주석가 Saadia의 아랍어 *jubl ʿazaz*(rugged cliff 혹은 rocky precipice)의 번역에 근거한 것이다.[8] 이 주장을 펴는 이들은 아사셀의 어근('*z.z*)이 '강한, 맹렬한'을 의미하기에, 염소의 최종 목적지를 묘사한다고 본다.[9] 그러나 아사셀과 야웨가 병행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존재(being)를 가리키므로 장소로 보기 어렵다.[10]

(2) 아사셀은 히브리어 '염소'('ēz, goat)와 '가버리다'('āz*al*), to go away)의 합성어인가?[11] 즉 LXX(ἀποπομπαίος)와 Vulgate(*carpo emissario*)가 번역하듯이 '보내어진 숫염소'(the goat has gone away 혹은 escape goat) 자체인가? 같은 맥락에서 NIV는 일관성 있게 'scapegoat'로 번역하는데(그리고 KJV, NAB), 이 표현은 1530년의 William Tyndale 번역에

6) G.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236.

7) 김하연, "산 제물(롬 12:1; 레 16:6-22)," 『본문과 설교』 3 (2010), 77.

8) M.S. Moore, "Azazel," in W.A. VanGemeren (ed.), *NIDOTE.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1997), 421.

9) M.F. Rooker, *Leviticu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216.

10) Rooker는 10절의 '여호와 앞에'처럼 8절의 '여호와를 위하여' 역시 여호와의 현존의 장소인 회막을 가리킬 수 있다고 보면서, 8절의 '아사셀을 위하여'도 존재(being)가 아니라 숫염소가 가는 장소를 가리킨다고 본다. Rooker, *Leviticus*, 217.

11) A.P. Ross, 『거룩과 동행: 앨런 로스의 레위기 강해를 위한 주석』 (*Holiness to the Lord: A Guide to the Exposition of the Book of Leviticus*, 김창동 역, 서울: 디모데, 2009 [2002]), 442; Dennis, *ESV Study Bible*, 237.

처음 등장했다.[12] 하지만 아사셀이 광야로 보내어지는 숫염소 자체를 가리키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숫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혹은 '아사셀에게' 광야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13]

(3) 해리슨 등이 주장하듯이 '완전한 제거/파멸'(entire removal 혹은 complete destruction)을 뜻하는가?[14] 이것은 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제거했다는 사상을 반영한 신학적 해석이다.

(4) 오늘 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아사셀은 '리워야단'처럼(사 27:1) '마귀'를 의인화 한 것 혹은 마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인가?[15] CEV는 'the demon Azazel'이라 번역한다. 아사셀이 마귀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8절에서 '여호와를 위해서'(לַיהוָה)와 '아사셀을 위해서'가 대조되고 있다. 전치사 לַ는 '소유'를 뜻할 수 있기에, 각각 '여호와에게 속한'과 '아사셀에게 속한'으로 번역할 수 있다.[16] (b) 후기 유대 문헌에서 아사셀은 마귀의 이름으로 등장한다. 예를 들어, 1에녹 10:4절은 "주께서 천사 라파엘에게 아사셀의 손과 발을 묶어 어두운 곳에 던지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라파엘은 Dudael의 광야에 구멍을 파서 아사셀을 거기에 던져버렸다"고 기록한다(그리고

---

12) Rooker, *Leviticus*, 216.

13) J.E. Hartley, *Leviticus* (WBC; Dallas: Word Books, 1992), 237; J.P. Lange, 『레위기』 (*Leviticus*, Lange Commentary; 서울: 백합출판사, 1980), 287.

14) R.K. Harrison, 『레위기』 (*Leviticus*, Tyndale Commentary; 이순태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1980]), 197. 해리슨은 아사셀이 '악의 세력' 혹은 '광야의 마귀'를 가리킬 수 없다고 보는데, 가공적인 신화적 해석은 대 속죄일에 행하는 제사의 거룩한 절차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15) J. Walton et al, 『IVP 성경배경주석』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서울: IVP, 2010 [2000]), 186-87; Moore, "Azazel," 421; J. Milgrom, *Leviticus*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168; C.F. Keil & F. Delitzsch, *Pentateu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 Grand Rapids: Eerdmans, 1976), 398.

16) R. Gane, *Leviticus*, *Numbers*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4), 288.

아브라함의 묵시 13-14). 이와 유사한 사상 즉 하나님에 대적한 세력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사야 14:12-15와 계시록 20:1-6 등에 나타난다.[17] 4QEn Giant에서 아사셀은 타락한 천사의 두목으로 등장 한다. (c) 구약은 광야를 마귀와 유사한 존재의 거처로 본다. 유대인들은 마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혹은 '광야'에 있다고 믿었다(참고. 사 13:21; 34:14; 마 4:1; 12:43; 눅 11:24; 계 12:6; 18:2). 메소포타미아인들도 짐승을 광야로 보내어 자기 대신 마귀의 공격을 받을 대상물로 삼기도 했다.[18]

네 번째 주장이 옳다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제거하는 대 속죄일에, 전체 백성의 죄를 이 숫염소에게 전가시킨 후 광야의 마귀(아사셀)에게 보내 버리는 것이다(레 16:21).[19] '사탄 배상설' 즉 숫염소를 아사셀에게 선물로 바치거나

---

17) S.E. Balentine, *Levitic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9), 131.

18) V.G. Shillington, "Atonement Texture in 1 Corinthians 5:5,"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71 (1998), 47;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234.

19) Westbrook & Lewis는 숫염소를 광야로 데리고 가도록 지정된 사람을 힛타이트 제국에서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장식된 양들(rams)을 데리고 적국의 진영으로 갔던 한 여자와 비교한다. 힛타이트의 Huwarlu와 Ambazzi 제의에서 무리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개와 쥐와 같은 산 짐승들이 사용되었다. 바벨론의 마르둑은 질병과 악령에 들린 자에게 염소를 갖다 대어 주문(spell)과 더불어 치료했다는 전설이 있다. Zatelli는 Ebla의 고고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아사셀에 대해 논증하면서, 무덤에 새겨진 염소는 '지하 세력'(chthonian power)을 상징하고, 제왕의식(regal ritual) 중 '염소 제의'(goat rite)는 영묘(mausoleum)와 연결된다고 본다. 참고. R. Westbrook & T.J. Lewis, "Who led the Scapegoat in Leviticus 16:21?,"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7 (2008, 3), 419; I. Zatelli, "The Origin of the Biblical Scapegoat Ritual: the Evidence of Two Eblaite Texts," *Vestus Testamentum* 48 (1998, 2), 258-59. 하지만 분명히 할 것은 고대근동의 관습과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종교사학파적 해석은 분명한 차이점들로 인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 Milgrom, *Leviticus*, 166. 히브리 종교가 주변 나라의 어떤 문학양식과 특정 표현을 차용했을지라도 그것은 신적영감의 산물이며, 그 자체가 이집트 및 주변 국가들의 종교와 전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참고. C.F. Aling, 『이집트와 성경 역사』 (*Egypt and Bible History*, 신득일 외 역, 서울: CLC, 2010 [1984]), 165. 레 16장은 재앙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숫염소를 적의 진영이 아니라 광야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20] 죄의 출처인 아사셀에게 보냄으로써 죄악은 아사셀(비 진리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참고. 요 8:44; 요일 3:8)에게 적합하다는 것을 조롱하며 선언하는 것이다.[21] 이 염소는 오늘날 '쓰레기차'와 같은 운반도구일 뿐이다.[22] 죄를 죄악의 근원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참고. 잠 26:27; 겔 9:10; 11:21; 16:43; 22:31).[23]

덧붙여 이스라엘은 이전에 '음란하게'(참고. 레 20:5-6) 우상숭배 했던(복수

보냈으며, 숫염소와 무덤을 연결하지 않으며, 여인이 아니라 아마도 제사장 한 명이 숫염소를 데리고 가는 일을 감당했던 것 같다.

20) 고대근동에서 죄와 부정을 진 짐승은 마귀의 제물로 적합하지 않았다. 참고. Milgrom, *Leviticus*, 168.

21) G.W. Demarest, *Leviticus* (The Communicator's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90), 179; Lange, 『레위기』, 284.

22) Milgrom, *Leviticus*, 169.

23) 보라. Gane, *Leviticus*, *Numbers*, 291. Balentine은 레 14:2-8을 레 16:6-8의 간 본문으로 본다. Balentine, *Leviticus*, 132. 나병에서 나은 사람을 위해서 새 한 마리를 죽여 피로 정결케 된 자에게 일곱 번 뿌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들판에 놓아주어야 했다(레 14:53). 둘 중 하나만 자유로운 것은 레 14:14와 17절에도 등장한다. 속건 제물의 피를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의 '오른 편' 귓불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했다. 사람에게 왼편과 오른 편이 있는데, 오른 편에만 발라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때 그들의 '오른편' 귓불과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레 8:23-24). 이 의식(one-sided anointing)을 통해서 나병에서 치유된 자는 부정한 나병 환자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평민보다 더 거룩하고 명예롭게 높아졌다. Douglas는 레위기의 '불평등한 짝'(uneven pair) 사상을 창세기에서 두 형제 중 하나만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것과 비교 한다(예.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라헬과 레아). M. Douglas,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240, 249. 이 사상은 창세기에서 두 형제를 넘어 도시와 민족도 그러하다(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들). Douglas가 창세기의 불평등한 짝 사상이 레위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것은 옳은가? Douglas는 엄밀한 의미에서 '불평등한'(uneven)보다 '다른'(different)이 옳다고 보는데, 사람은 한 편으로만 존재할 수 없기에 양편이 있어야 '전체'를 이루기 때문으로 본다. 속죄 제물로 드려진 숫염소(레 16:9)와 아사셀에게 보내진 숫염소가 합해져서 하나님의 속죄 사역의 '전체'를 이룬다. 참고. Douglas, *Leviticus as Literature*, 251.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적용해 보면,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 투표에 당선되건 안 되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해야 한다.

형) '숫염소들'(שְׂעִירִם, NIV: the goat idols, NRS: goat-demons)에게 더 이상 제사 드리지 말아야 한다(레 17:7).[24] 실제로 고대 근동에 'Satyr'라 불리는 광야의 숫염소 우상이 있었다(참고. 사 13:21).[25] 애굽 남부 지역(lower Egypt)의 동부 삼각주에서 염소 숭배가 있었는데, 제의 중 여성 신자가 염소와 교미하는 것도 포함했다.[26] 아론 당시와 그 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우상(예. 숫염소 모양의 신으로 자연의 풍요를 주관한 Pan) 숭배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수 24:14; 대하 11:15; 겔 20:7).[27]

2. 아사셀에게 보내어진 염소의 실체이신 대제사장 예수님

다시 반복하지만 대 속죄일에 숫염소는 광야의 아사셀에게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다. 백성의 죄를 진 그 숫염소는 아사셀의 소유처럼 여겨져서 아사셀에게 보내어진 것이다. Gane 은 숫염소가 아사셀에게 바쳐져 희생 제물(sacrifice)로 죽은 것이 아니므로, 이 염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되신 것의 그림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28] Gane은 아사셀에게 보내어진 숫염소를 죽인 사람이나, 여호와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숫염소가 여호와께 바쳐졌

24) 레 17:7 LXX καὶ οὐ θύσουσιν ἔτι τὰς θυσίας αὐτῶν τοῖς ματαίοις οἷς αὐτοὶ ἐκπορνεύουσιν은 "And they shall no longer offer their sacrifices to vain *gods* after which they go a whoring"(LXE)이므로, MT에 있는 '숫염소들'(he-goats)이 나타나지 않는다.

25) 보라. Hartley, *Leviticus*, 238. 노트는 왕하 23:8을 요시아 왕이 파괴한 염소들을 위한 사당이라 본다. 그리고 그는 사 13:21과 34:14를 염소 악령들이 파괴된 도시의 폐허에 산다는 증거 구절로 제시한다. 참고. Noth, 『레위기』, 159.

26) Harrison, 『레위기』, 210.

27) Lange, 『레위기』, 304; Keil & Deliztsch, *Pentateuch*, 409.

28) Gane, *Leviticus*, *Numbers*, 289.

다는 언급도 없고, 오히려 이 염소는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진영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다고 주장 한다.[29] 그리고 Gane은 이 염소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사셀에 속한 것이므로, 하나님의(즉 하나님에게 속한) 아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Gane은 예수님의 비 희생적(non-sacrificial) 사역도 이 숫염소와 연결시킬 수 없다고 보면서, 히브리서 13:11-13은 아사셀에게 보내어진 염소와 무관하다고 본다. 만약 Gane의 주장이 옳다면, 레위기 16:3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다른 수송아지와 '번제물'로 드려진 숫양이 예수님의 희생 제물되심의 그림자가 될 수 있다. 과연 Gane의 이런 주장은 합당한가? 아사셀에게 보내어진 숫염소가 죽어 희생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아니라 아사셀에게 속한 것이므로, 예수님의 희생 제물되심의 그림자가 될 수 없는가? 레위기 16:5, 7, 10절은 이 숫염소가 이스라엘의 죄를 제거하시려는 여호와의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구별되었음을 밝힌다. 이런 의미에서 아사셀에게 보내진 염소도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레위기 16:5의 숫염소 두 마리가 단수형 '속죄 제물'(חַטָּאת)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두 염소는 동일한 희생의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즉 하나는 속죄의 수단이며, 다른 하나는 속죄의 결과이다.[30] 그리고 이 염소가 죽었거나, 이 염소를 도살한 사람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도 예수님의 희생제물 되심의 그림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형론은 모형과 실체 사이에 지엽적인 부분에까지 일치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6-9장이 이런 모형론적 해석을 하고 있다.[31] 실제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신다는 주요

29) Gane, *Leviticus*, *Numbers*, 288.

30) Demarest, *Leviticus*, 179.

31) 참고. Balentine, *Leviticus*, 131; Demarest, *Leviticus*, 180. 히 9:26은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시대') 끝에 나타나셨다고 말씀한다. '세상 끝'(συντελείᾳ τῶν αἰώνων)은 예수님의 성육신 이전의 '죄악의 시대의 끝'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본격적인 사죄와 생명과 의와 생명의 시대가 종말론적으로 개시되었다. 따라서 구약의 대 속죄일은 성탄절과 연결된다. AD 3세기의 '바나바의 서신'도 아사셀에게 보내어진 염소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언급한다.

목적이 이 염소와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모두 나타난다.

신약 성도에게 더 이상 대 속죄일이나 '속죄'를 위한 짐승이 필요 없다(참고. 시 40:6; 골 2:17; 히 10:5). 왜냐하면 영 단번(once-for-all)의 속죄를 이루시려고 무흠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이다(참고. 사 53:4-6; 요 1:29; 롬 3:25; 고후 5:21; 갈 3:13; 히 9:28; 벧전 2:24).[32]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보다 뛰어나신 분이다(참고. 히 5:4-6; 7:1-28).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필요로 했던 아론이 매년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향로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면(히 10:11),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필요로 하지 않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예수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 13:12; 참고. 마 21:39; 눅 20:15; 요 19:17; 히 9:7-14).[33] 대 속죄일의 속죄 염소이신 예수님은 시편 103:12도 성취하셨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참고. 요일 1:9).[34] 대제사장 아론처럼 예수님은 '온 교회적 인격'을 가진 분이지만, 예수님 안에는 구약은 물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도 포함된다.[35]

---

32) 보라. Hartley, *Leviticus*, 245. Noordtzij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것이다"(슥 3:9)와 대 속죄일이 무관하다고 본다. Noordtzij, *Leviticus*, 159. 하지만 바로 앞의 슥 3:8의 메시아를 가리키는 '내 종, 새 싹'과 연결시켜보면(참고.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 렘 23:5),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영 단번에 씻어주실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속죄 사역을 여호와의 '일곱 눈'(슥 3:9; 4:10) 즉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계 5:6의 '온 땅으로', 참고. 계 1:4; 3:1; 4:5; 5:6) 속죄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심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계 5:6).

33) Ross는 신약 성경이 유월절과 오순절의 경우와 달리 속죄일이 언제 성취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 이유를 AD 1세기 교회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유익이 완전히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본다. Ross, 『거룩과 동행』, 449. 그러나 속죄일의 효력이 유월절과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참고. Demarest, *Leviticus*, 177. 유월절처럼 대 속죄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기 때문이다. 참고.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237.

34) 보라. Demarest, *Leviticus*, 179

총독 빌라도는 *Pax Romana*에 반하여 사회 불안을 조장한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삼으려했고, 대제사장들은 부패한 성전에 대한 개혁을 시도했던 예수님을 종교적 의미에서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36]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죄에 대해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사신다(롬 6:10). 마찬가지로 레위기 16장의 속죄 제물로 정해진(레 16:5) 아사셀 염소도 죽었다는 언급은 없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다는 베드로의 언급(벧전 3:19)과 사도신경의 고백의 바탕에 아사셀에게 바쳐진 염소가 있다고 보는 Hartley는 예수님이 죄의 센터인 지옥에 내려가셔서 죄악을 그곳에 버렸다고 주장한다.[37] 하지만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며, 예수님이 죄를 지옥에 두셔야 성도가 해방되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전서 3:19는 승귀의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38]

3. 교회의 거룩과 삶으로서의 예배

3.1. 영원한 규례로서 대 속죄일

레위기 16:29와 31절은 대 속죄일 제도가 '영원한 규례'라고 밝힌다. 비록

35) Kiuchi는 레 16:24에 언급된 아론의 목욕은 그가 아사셀에게 보낸 염소로부터 부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경험한 지성소의 지극한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여 씻어낸 것으로 본다(참고. 출 30:29). N. Kiuchi,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Its Meaning and Function* (Sheffield: JSOT Press, 1987), 137.

36) S.M. Heim, "No More Scapegoats: How Jesus put an End to Sacrifice," *Christian Century* 123 (1996, 18), 23.

37) Hartley, *Leviticus*, 245.

38) Ross, 『거룩과 동행』, 449.

대 속죄일이 의식법의 하나로서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폐지시키신 율법이지만, 그 정신은 신약에도 유효하다(참고. 롬 10:4). 예수님은 아마도 대 속죄일의 금식 규정에 근거한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기준으로 삼아 자신을 공격해 온 유대인들의 비판에 성공적으로 응전하셨다(참고. 레 16:29, 31; 막 2:18-22). 예수님은 레위기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신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정결을 선언하셨다(레 13:45-46; 막 1:41; 그리고 레 15:25; 막 5:27; 그리고 민 19:11; 막 5:41). 예수님의 정결법에 의하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막 7:15; 비교. 레 11).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출 16:25-26; 막 2:23-28; 3:1-6).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정결과 전통에 근거한 율법 해석만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율법을 성취(그리고 완성 및 폐지)하시고 재정의 하셨다. 예수님 자신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레위기의 그리스도 완결적 해석의 정당성을 뒷받침 한다.[39]

3.2. 산제사(롬 12:1)

먼저 AD 1세기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네로 치하 로마 대화재(AD 64) 이후로 로마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희생양이 되었다. 어느 시대건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악한 구조와 도전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처신은 비둘기 같이 순결할 뿐 아니라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

39) A. Watson, "Leviticus in Mark: Jesus' Attitude to the Law," in J.F.A. Sawyer (ed.), *Reading Leviticus: a Conversation with Mary Dougla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269.

Kiuchi은 로마서 12:1의 빛 속에서 성도는 아사셀 염소(Azazel-goat)같은 산제사(living sacrifice)를 드려야 한다고 본다.[40] 후기 유대주의(AD 2세기 미쉬나 Yoma 4:2; 6:6)는 숫염소를 '보내어진 염소'(sent-away goat)라 부르면서, 광야로 이끌고 간 사람이 골짜기의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레 16장에서 '아사셀 염소'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레 16:5)로 운명 지어졌으나 죽었다는 언급이 없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순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산 제물 즉 자기희생적으로 살아야 한다.[41]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성도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게 살아났기 때문이다(롬 6:3, 5, 10-11). 남의 죄를 지고 간 아사셀 염소처럼 성도는 자신은 물론 남을 위해서도 헌신해야 한다.[42]

3.3. 치리를 통한 교회의 거룩(고전 5:5)

Shillington은 아사셀 염소를 고린도전서 5:5와 연결한다.[43] 하늘보다는 땅, 경건보다는 불 경건, 생명보다는 파괴와 연결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인 아사셀에 대한 유대 전승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면, 그는 아사셀을 음행과 같은 부정한 육체의 죄악과 연결시켰을 수 있다. 비록 고린도교회가

40) N. Kiuchi, "Living like the Azazel-goat in Romans 12:1B," *Tyndale Bulletin* 57 (2006, 2), 256-57; 김하연, "산 제물," 75.

41) 구약의 희생 제사에 제사 드리는 사람의 헌신과 감사 그리고 회개가 포함되었으므로, 문자적인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 영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설명이다. 참고. Kiuchi, "Living like the Azazel-goat in Romans 12:1B," 254.

42) 예수님처럼 성도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히 13:13은 성도가 자신의 죄나 남의 죄를 대속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도가 찬양의 제물과 선한 행실을 장려하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히 13:15-16). 참고. Kiuchi, "Living like the Azazel-goat in Romans 12:1B," 260. 그리고 신약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인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가진 이들이다(히 10:19-20).

43) Shillington, "Atonement Texture in 1 Corinthians 5:5," 46.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지만(고전 5:7), 고린도 공동체 안에 죄가 있었다. 음행의 죄는 공동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친 죄악이었다(communal sin, 고전 5:2). 교회를 순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 음행을 회개하지 않은 자를 사탄(즉 아사셀)에게 넘겨주어야(handing over) 했다(고전 5:1, 5; 참고. 레 18:8 LXX는 고전 5:1의 간 본문). 사탄에게 넘겨주는 것은 교회의 치리를 의미하는데, 치리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전 5:5; 참고. 딤전 1:20). 가장 심각한 치리는 출교인데, 교회 밖은 사탄의 영역처럼 생각되기도 한다(참고. 눅 4:5-6; 엡 2:2; 요일 5:19).[44] 하지만 출교를 당한 자가 회개하여 구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3.4. 지나간 이전 것들을 벗어야 하는 새 피조물(고후 5:17-19; 골 3:9-13)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으며(καινὴ κτίσις· γέγονεν καινά)이며, 이전 것들은 지나갔다(τὰ ἀρχαῖα παρῆλθεν)고 선언 한다(고후 5:17).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도에게 화목의 직분(τὴν διακονίαν τῆς καταλλαγῆς)을 주셨다(고후 5:18).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고후 5:19). 바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법적인 대리인'(legal agent)으로 여긴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채무를 갚으심으로써,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다.[45] 이 사상을 바울은 옛 사람을 벗고(ἀπεκδυσάμενοι τὸν παλαιὸν ἄνθρωπον), 새 사람을 입는 것(ἐνδυσάμενοι τὸν νέον τὸν ἀνακαινούμενον)으로 설명 한다(골

44) Dennis, *ESV Study Bible*, 2197.

45) G.W. Buchanan, "The Day of Atonement and Paul's Doctrine of Redemption," *Novum Testamentum* XXXII (1990, 3), 244.

3:9-10).[46] 이것에 부응하는 성도의 삶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다(골 3:12-13).[47] 아사셀에게 죄를 진 숫염소가 가버린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옛 사람은 지나가버렸기에,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3.5. 찬양과 선행의 삶으로 주님의 치욕을 짊어짐(히 13:12-16)[48]

히브리서에서 대 속죄일은 히브리서 9:7, 25와 10:1-4에 나타난다. 그리고 히브리서 13:12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아사셀에게 보내어진 숫염소와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49] 골고다로 가신 예수님이 모형론적 혹은 유비적으로 연결 한다(막 15:20; 요 19:17-20).[50] 물론 실체이신 그리스도

---

46) Rogers Jr. & Rogers III와 Zerwick은 골 3:9-10의 두 분사를 '이유의 분사'(causal participle)로 보는데, 한글 개역 개정판과 NIV도 그렇게 번역 한다(... since you have taken off your old self ... and have put on the new self ...). C.L. Rogers Jr. & C.L. Rogers III, *The New Linguistic and Exegetical Key to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8), 467; M. Zerwick,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3), 609. 하지만 바른 성경은 명령형으로 번역 한다: "... 너희는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

47) 참고. Buchanan, "The Day of Atonement and Paul's Doctrine of Redemption," 246.

48) DeSilva는 히 13:10-16을 히브리서 전체 설교의 논의를 적절하게 반복한 것으로 본다. D.A. DeSilva, *Perseverance in Gratitude: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Grand Rapids: Eerdmans, 2000), 498.

49) 출 32장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 밖의 회막에 머무셨다(출 33:7). 예수님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신 사건이다. 참고. P.T. O'Brien, *The Letter to the Hebrews* (Grand Rapids: Eerdmans, 2010, 524. 따라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진영 밖으로 간 것(히 13:13)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간 것이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하늘의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에게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히 13:15). 참고. P. Ellingworth, *The Epistle to the Hebrew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3), 717.

50) 참고. F.H. Cortez, "From the Holy to the Most Holy Place: the Period of Hebrews 9:6-10 and the Day of Atonement as a Metaphor of Transit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5 (2006, 3), 527; G.H. Guthrie, *Hebrews*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의 사역이 그림자보다 더 월등하다.[51]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을 고려해 볼 때, 13절의 '진영'(παρεμβολή)은 구약의 성막 제의에 근거한 '유대교'라는 종교를 가리킨다(참고. Guthrie, 1998:440). 그리스도인도 장차 올 영원한 성읍 (하늘의 예루살렘, 히 12:22; 저 안식, 4:11)을 갈망하면서 치욕을 짊어질 각오를 하며(히 13:13-14; 참고. 마 10:38),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52] '찬양의 제물'(참고. 레 7:12 LXX의 화목제사) 즉 '입술의 열매'(참고. 감사 기도와 찬양, 시 50:14, 23; 사 57:18; 호 14:2; 히 12:28)를 드리며(히 13:15),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εὐποιΐας, NT *hapax*)과 나누어주는 것(κοινωνίας)을 해야 한다(히 13:16; 참고. 히 10:24; 13:1-3). 선행은 나누어주는 것의 다른 표현이다.[53] 이것들이야말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의 제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드려야 할

Zondervan, 1998), 440; Ellingworth, *The Epistle to the Hebrews*, 715.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레 16장의 대 속죄일의 제사 사이에 불일치점도 있다: (1) 히브리서 기자는 피를 '바치다'(προσφέρει, offer)고 하지만(히 9:7), 레위기는 '뿌리다'(sprinkle)고 한다(레 16:14-15). (2) 히 9:15-23에서 "피를 뿌리다"는 대 속죄일보다는 출 24장의 시내 산의 언약 체결을 염두에 둔 것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히 7:22; 8:6; 9:15)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라 불리기에 (히 10:29; 12:24; 13:20), 대 속죄일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주 모형론(primary typology)으로 보기 어려운 면도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민 19장의 붉은 암송아지도 염두에 두었을 수 있다. (3) 히 9:7은 물론 히 1:3도 대 속죄일에 근거한 구절이라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죄를 정결하게 하는 피 뿌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소개하는 레 16장과 달리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죄를 정결하게 하신 후(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소개 한다. 참고. Cortez, "From the Holy to the Most Holy Place," 528-29. 이런 차이점들에 근거하여 Cortez는 히브리서 기자가 대 속죄일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모형론이 아니라,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비유'로 본다(히 9:9).

51) 참고. O'Brien, *The Letter to the Hebrews*, 523; DeSilva, *Perseverance in Gratitude*, 500.

52)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히 13:15)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예배 상황은 물론, 불신자를 만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로운 명성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다. 참고. DeSilva, *Perseverance in Gratitude*, 500. 하지만 Ellingworth는 '고백하다'를 '인정하다/고백하다'보다는 '찬양하다'로 이해한다. Ellingworth, *The Epistle to the Hebrews*, 721.

53) Ellingworth,*The Epistle to the Hebrews*, 721.

제물이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제의적 구절들을 그리스도인 독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식으로 재상황화 함으로써, 구약 제의와 기독교 예배를 대조 시킨다.[54]

3.6. 교회력과 성령론적 적용

이스라엘의 연중 절기 중 세 개가 티쉬리(Tishri)월에 집중되었다. 티쉬리월 1일에는 신년 잔치인 나팔절(Rosh Hashanah, 레 23:23-25),[55] 10일에는 대 속죄일(레 23:27), 15-22일에는 장막절(레 23:34)을 지켜야 했다. 대 속죄일을 거행한 티쉬리월 10일은 가을걷이와 출애굽이라는 구원을 기념하는 장막절 5일 전이다. 이 무렵은 신약 교회력의 대강절(Advent) 즉 성탄절 4주전의 기간에 해당한다.[56] 티쉬리월의 '나팔절-대 속죄일-장막절'은 1년의 추수 무렵에 거행한 신년의 구원사적 잔치의 덩어리라 볼 수 있다.[57] 신약 교회는

54) 참고. DeSilva, *Perseverance in Gratitude*, 504; Ellingworth, *The Epistle to the Hebrews*, 719.

55) 이스라엘의 신년 잔치(New Year Festival)와 대 속죄일은 니산월 제 2-5일에 있었던 바벨론의 신년 잔치와 유사하면서도 다른데, 바벨론의 영향으로 볼 수 없다. 유사점으로는 목욕, 향로 피우기, 성소에(피 혹은 물을) 뿌리기, 제사로 부정함을 제거하기, 고백, 회개를 포함하는 대세자장의 의식으로 성전을 정화하기이다. 차이점으로는 바벨론에서 침입자 사탄이 쫓겨나며, 정화 의식이 성전을 깨끗이 씻는데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며, 아사셀에게 보내어진 속죄 염소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것이 없고, 짐승을 죽인 자나 제사장의 부정이 7일 동안 지속되며, 의식의 일부는 하급 제사장이 거행했고, 왕은 겸손 의식을 치렀으며, 모든 행사는 11-12일 동안 계속된 점이다. 참고. Milgrom, *Leviticus*, 163-65; Ross, 『거룩과 동행』, 447.

56) 물론 구체적으로 볼 때 대 속죄일은 예수님이 죽으신 금요일에 해당 한다.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238.

57) 참고. Buchanan, "The Day of Atonement and Paul's Doctrine of Redemption," 238. Ford는 마 6:12(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을 나팔절과 대 속죄일을 배경으로 하여 이해한다. J.M. Ford, "Yom Kippur and the Matthean

대강절 기간 즉 11말-12월말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통한 사죄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 한다. 대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그들의 부정과 죄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처인 회막도 정결하게 되었다(레 16:16, 18-19, 33). 속죄의 정결로 인해, 하나님의 거처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된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요 복이었다. 신약 성도가 성령의 거처요 전으로서 살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 때문이다. 무엇보다 성도가 정결하게 되어 성령의 전이 된 것을 성찬을 자주 시행함으로써 축하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식은 신약의 대 속죄일이다. 따라서 성찬식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내주의 은총을 받은 공동체가 사탄과 죄를 이기는 자가 된 것을 축하하는 시간이다.[58]

Form of the Pater Noster," *Worship* 41 (1967, 10), 610-19. 미쉬나에 의하면, 나팔절에 책 3권이 열리는데, 한 권(생명책)은 전적으로 의로운 자들을 위해서, 한 권(사망의 책)은 전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권은 의인과 악인 중간의 사람을 위해서 열린다. 나팔절과 대 속죄일 사이의 10일 동안 중간 형편의 사람이 회개하면 생명책에 녹명될 수 있다. 만약 마 6:12가 사람 사이의 화해가 이루어진 회개의 10일 이후 대 속죄일에 암송되었다면, 예배자들이 동료와의 화해라는 필요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왜 기도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Ford는 '하늘과 땅'(마 6:10)은 하늘의 하나님이 심판자로 이 땅에 임하시는 대 속죄일과, '일용할 양식'(마 6:11)은 *Yoma* 75a의 '몸의 지체들(the 248 parts of the body)의 빵'과, '시험'(마 6:13)은 대 속죄일의 '검사'(examination; 즉 생명책에 녹명되도록 간청함)와, 송영(마 6:13)은 대 속죄일에 선포된 특별한 복의 선포(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이름이 복되며 영원하다!; 참고. 신명기 라바 2:36)와, 마 6:16-18의 금식에 대한 교훈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대 속죄일 배경에 적합하다고 본다. 그리고 Ford는 대 속죄일에 사용된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세례식에 행한 기도에 적합하며, 산상설교는 나팔절과 대 속죄일 사이 10일 동안 했던 '회개'의 주제에 대한 강론이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하늘의 하나님에게 하는 죄의 고백과 구원을 위한 기도로 본다. Ford는 마태공동체가 시리아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심이었다면,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대 속죄일을 준수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Ford의 주장은 유대 문헌에 근거한 한계가 있으며, AD 1세기 그리스도인이 주기도문을 대 속죄일 하루만 암송한 것이 아니다.

58) 참고. Demarest, *Leviticus*, 181-82.

나오면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의 십자가로 가셔서 해결하신 유월절 어린양 예수님 때문에 죄와 죽음과 황폐함을 초래한 마귀를 더 이상 아비로 섬기지 않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산제사 즉 생명과 거룩과 의와 하나님과 천국을 향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과 공동체로부터 우상과 죄악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답게 지나가버린 이전 것들을 계속 벗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치욕을 견디며, 장차 올 성읍을 소망하면서, 찬양하며 선을 행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담대함을 가지도록 성찬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은혜와 힘을 받아야 한다.

참고문헌

C.F. Aling, 『이집트와 성경 역사』 (*Egypt and Bible History*, 신득일 외 역, 서울: CLC, 2010 [1982]).

S.E. Balentine, *Levitic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9).

G.W. Buchanan, "The Day of Atonement and Paul's Doctrine of Redemption," *Novum Testamentum* XXXII (1990, 3), 236-49.

F.H. Cortez, "From the Holy to the Most Holy Place: the Period of Hebrews 9:6-10 and the Day of Atonement as a Metaphor of Transit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5 (2006, 3), 527-47.

G.W. Demarest, *Leviticus* (The Communicator's Commentary; Dallas: Word Books, 1990).

L.T. Dennis (ed.), *ESV Study Bible* (Wheaton: Crossway Bibles, 2008).

D.A. DeSilva, *Perseverance in Gratitude: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Hebrews* (Grand Rapids: Eerdmans, 2000).

M. Douglas, *Leviticus as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Ellingworth, *The Epistle to the Hebrews* (NIGTC; Grand Rapids: Eerdmans, 1993).

J.M. Ford, "Yom Kippur and the Matthean Form of the Pater Noster," *Worship* 41 (1967, 10), 609-19.

G.H. Guthrie, *Hebrews*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98).

R. Gane, *Leviticus*, *Numbers* (NIV Application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4).

R.K. Harrison, 『레위기』 (*Leviticus*, 이순태 역, 틴데일주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1980]).

J.E. Hartley, *Leviticus* (WBC; Dallas: Word Books, 1992).

S.M. Heim, "No More Scapegoats: How Jesus put an End to Sacrifice," *Christian Century* 123 (1996, 18), 22-29.

C.F. Keil & F. Delitzsch, *Pentateu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1; Grand Rapids: Eerdmans, 1976).

N. Kiuchi, "Living like the Azazel-goat in Romans 12:1B," *Tyndale Bulletin* 57 (2006, 2), 251-61.

N. Kiuchi, *The Purification Offering in the Priestly Literature: Its Meaning and Function* (Sheffield: JSOT Press, 1987).

J.P. Lange, 『레위기』 (*Leviticus*, Lange Commentary; 서울: 백합출판사, 1980).

J. Milgrom, *Leviticus* (A Continental Commenta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4).

M.S. Moore, "Azazel," in W.A. VanGemeren (ed.), *NIDOTE. Vol. 4* (Grand Rapids: Zondervan, 1997), 421-22.

A. Noordtzij, *Leviticus* (Bible Student's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1982).

M. Noth, 『레위기』 (*Leviticus*, 국제성서주석;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4 [1978]).

P.T. O'Brien, *The Letter to the Hebrews* (Grand Rapids: Eerdmans, 2010).

R.L. Pratt Jr. (ed.), *Spirit of the Reformation Study Bible* (Grand Rapids: Zondervan, 2003).

C.L. Rogers Jr. & C.L. Rogers III, *The New Linguistic and Exegetical Key to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8).

M.F. Rooker, *Leviticu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 Holman Publishers, 2000).

A.P. Ross, 『거룩과 동행: 앨런 로스의 레위기 강해를 위한 주석』 (*Holiness to the Lord: a Guide to the Exposition of the Book of Leviticus*, 김창동

역, 서울: 디모 데, 2009 [2002]).

V.G. Shillington, "Atonement Texture in 1 Corinthians 5:5,"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71 (1998), 29-50.

J. Walton et al, 『IVP 성경배경주석』(*The IVP Bible Background Commentary*, 서울: IVP, 2010 [2000]).

A. Watson, "Leviticus in Mark: Jesus' Attitude to the Law," in J.F.A. Sawyer (ed.), *Reading Leviticus: a Conversation with Mary Dougla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6), 262-71.

G.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R. Westbrook & T.J. Lewis, "Who led the Scapegoat in Leviticus 16:21?,"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27 (2008, 3), 417-22.

I. Zatelli, "The Origin of the Biblical Scapegoat Ritual: the Evidence of Two Eblaite Texts," *Vestus Testamentum* 48 (1998, 2), 254-63.

M. Zerwick, *A Grammatical Analysis of the Greek New Testament*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3).

김하연, "산 제물(롬 12:1; 레 16:6-22)," 『본문과 설교』 3 (2010), 67-81.

옥성호,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